

04 \_ 한국과학재단, 이렇게 달라진다

# ‘종합연구개발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

글 | 신동주 \_ 한국과학재단 연구진흥단장 djshin@kosef.re.kr

지난 2005년은 한국과학재단에 의미 있는 특별한 한해가 되었다. 특정연구개발사업과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등 국책연구개발사업을 인수하면서 한국과학재단은 종합연구개발지원기관으로 변모하였고, 예산 1조 원의 시대를 열었다. 또 과학재단이 기획예산처의 2004년도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우수기관 중의 하나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다. 사람도 기관도 흥망성쇠의 주기를 겪는다. 과학재단은 그 동안 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슬기롭게 변화해오면서 더욱 강해지고 튼튼한 기관의 입지를 다져왔다. 하지만 과학재단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선 다시 한번 변해야 한다. 따라서 2006년부터 과학재단은 중장기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이루어 갈 예정이다.

## 세계적인 연구지원기관으로 ‘일일신우일신’

한국과학재단은 새로운 변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우선, 브랜드 경영으로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한 기관경쟁력을 제고하고, 기관평가 및 고객만족도 최우수기관으로서의 선도역할을 강화하며, 국제 수준의 R&D 종합관리 품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로는 글로벌 경영과 관련해 내부 인적자원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과학기술협력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미국의 과학재단 ‘베스트 레인’ 보다 우수한 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신뢰경영으로 고객에 대한 친절도 및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고, 과학기술 연구자 및 지원기관의 윤리경영을 선도하며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2006년도 성과 목표는 6가

지 핵심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중장기 발전계획의 목표관리제(MBO, Management By Object)를 실시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며 단계별 추진전략에 따라 21개의 중점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국가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정책연구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책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분야별 연구수요 파악을 위해 정부 정책책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간담회를 매분기에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과학기술 분야 연구지원 전략 선행 연구 수행 등을 진행할 것이다.

셋째, 고객센터를 신설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고객지원 전담업무기능을 담당하고, 지역별 사업설명회 개최, 연구지원·관리 등 행정업무를 간소화하여 연구개발을 담당하



‘국내·외 제약산업 및 의약품 연구동향’이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



한국과학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비전 2010

는 일선 연구원 편의 위주로 고객지향적 연구관리 체제를 구축하며, 웹 검색 성과입력 시스템과 기초연구지식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성과에 대한 고객지향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고객들의 과학재단에 대한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3가지의 중점과제를 추진할 것이다.

셋째, SCI논문 순위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세계 논문의 5년간 평균 피인용횟수의 120% 이상 달성이 가능하도록 연구사업성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다섯째,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과학재단은 미국, 스웨덴, 일본 등 3개국에 주재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다. 2006년에는 동북아 R&D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국에 주재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연구협력협의회를 구성하여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BSC 기반 종합성과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조직의 전략목표달성과 혁신전략, 지식정보 등 조직에 필요한 역량을 발전시킬 것이고,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이 조화된 조직과 합리적 선진노사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 연구지원예산 전년 대비 13.8% 증가

과학재단은 지난 한해 강화된 기관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과학기술자들이 본연의 직분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다. 2006년엔 더욱 전문적인 연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과학재단의 예산구조는 기관고유사업예산과 위탁사업 예산으로 구분하며, 예산 전액이 국가 R&D 예산으로서 연구비 지원예산으로

2006년도 한국과학재단 위탁사업예산

(단위:억원)

사업명	'05예산(A)	'06예산(B)	증감(B-A)
기초과학연구사업	1,921	2,127	206
특정연구개발사업	4,196	5,010	814
원자력연구개발사업	1,973	1,857	△116
과학기술국제화사업	431	527	96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	2,786	3,403	617
합 계	11,307	12,924	1,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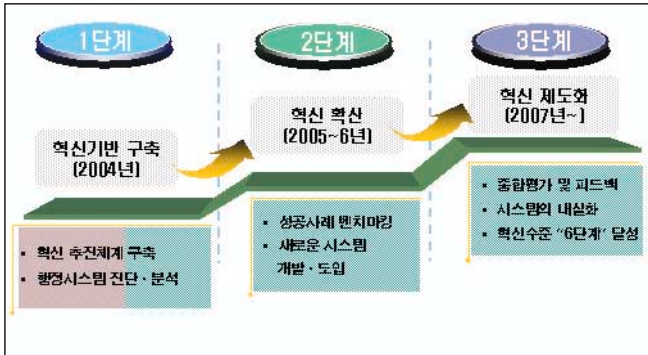
로 대부분 집행되고 있다. 2006년도 총예산은 1조3천288억 원으로서(2005년 대비 13.8% 증가), 기관고유사업예산에 364억 원, 위탁사업예산에 1조2천924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우수연구개발 사업을 포함한 특정연구개발사업 예산이 814억 원 증액되어 사업이 활성화되었다.

기관고유사업예산은 과학재단의 지원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예산이며, 위탁사업예산은 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초과학연구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등의 예산으로서, 대부분 연구자들에게 지원되는 예산들로 편성되어 있다.

위탁사업예산은 과학기술부에서 관리하는 기초과학연구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및 과학기술국제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탁사업 예산에 대한 기본방향 및 운영계획은 과학기술부에서 수립하여 과학재단에 통보하고, 과학재단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주기적 연구관리, 즉 연구동향분석 및 연구기획, 연구과제 신청 접수 및 평가, 선정된 과제관리, 연구성과관리 및 성과확산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과학재단은 2006년도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에





과학재단 중장기혁신 추진체계도

서 시행하던 이공계국가장학사업 사업비 745억 원을 인수받아 수행함으로써 과학기술과 관련한 모든 장학사업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과학재단은 매년 예산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운용함으로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관련 내용은 경영공시를 통하여 수시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2006년도에는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연구비 예산관리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재무구조의 건전화 달성을 위해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자체수입 확대 등 각종 여유자금의 수익성 제고 등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다양한 혁신활동 · 혁신마인드 공유**

과학재단은 2005년초 기관 혁신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혁신평가과를 신설하였다. 이는 혁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제도적 조치로서, 실제로 혁신평가과를 통해 재단 내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왔던 경영혁신 및 업무혁신이 집약적이고 전략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제까지 구축된 혁신기반을 토대로 과학재단은 2006년을 재단 혁신의 확산기로 설정하고 다양한 혁신활동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05년 한 해 동안 과학재단은 부서혁신사례발표회 개최 및 혁신사례집 발간을 통해 부서단위로 추진된 혁신활동을 대내·외로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유인체계를 수립해 혁신 추진에 동력을 제공하였다. 2006년에는 발표회를 확대 시행하여 혁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전부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재단혁신자문위원회, VOC(Voice of



혁신사례발표회



혁신아카데미

Customer)위원회, 혁신아카데미, 인터넷 혁신포럼 등 지난해 처음 시행된 다양한 혁신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2005년 과학재단 혁신의 또 다른 방향은 성과평가제도 개선이었다. 기존 성과평가는 인사위원회에서 부서 실적서를 점검하고 서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지난해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였고, 부서단위 목표설정시 재단 전략목표와 연계토록 유도하고 그 실적을 발표평가로 수행함으로써 기관차원의 실질적인 목표관리제(MBO)가 이루어졌다. ㉔



글쓴이는 한국과학재단 연구부장, 전문위원, 학술사업관리단장 등을 거쳤다.